

'온택트로 안전하게 만나요'

군산시, 시간여행축제... 온라인 랜선 프로그램·아외 전시 전환

군산시는 10월 전국적 코로나 확산 여파로 엄중한 방역상황을 감안해 시간여행축제의 대면 프로그램은 전격 취소하고 온라인 랜선 프로그램과 야외 전시로 전환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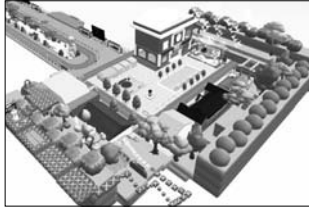
시는 오는 9일부터 31일까지 전면 온택트 방식으로 시간여행 축제관광주간을 정하고 평소 일상이 평범치 않은 '특별한 일상으로의 시간여행'을 슬로건으로해 대표축제의 명맥을 이어가며 침체된 지역분위기를 조금이나마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축제관광주간에는 온라인으로 '메타버스 군산시간여행축제'가 운영된다. 시간여행축제 메인광장(구)시청광장 및 시간여행마을 주요 관광자원을 메타버스 공간에 구현하고 관광객이 본인의 아바타를 이용해 가상공간 내 축

제를 둘러보고 미션게임에도 참여하는 스마트 관광 축제를 경험할 수 있다. 제페토 플랫폼(구글 스토어에서 제페토 다운로드)에 가상 축제공간이 구축돼 있다.

모든 공연은 랜선을 통해 실시간 중계된다. 시간여행 대동마당, 기획공연, 시민 참여의 콩쿠르 공연 등이 구)시청광장 야외무대에서 실시간 영상으로 시간여행축제 유튜브를 통해 전해진다. 단 현장 관람은 단계별 방역지침에 따라 제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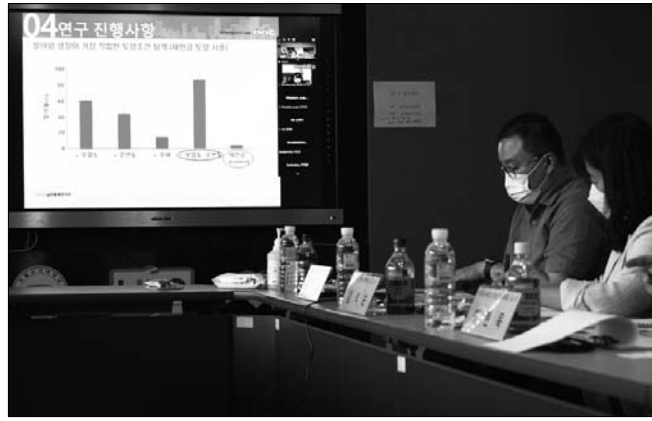
다채로운 야외 전시도 열린다. 구)시청광장에는 시간여행게이트, 의병수혈태극기 포토존이 설치되며 내항에는 군산 고대로의 시간여행 테마존이 만들어진다. 군산의 공통사태부터 조선 시대에 이르기까지 역사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개북동 예술거리 내 모교앞터에는 지역 청년활동가들이 기획한 '개북동으로 시간여행' 전시와 랜선공연이 펼쳐진다. 군산 문인 거리이며 군산의 충무로였던 과거 흔적을 찾아 이야기로 꾸며진다.

또한 월명동 골목마다 근대 태극기(20층) 거리, 그날의 합성 깃발 거리, 군산영화 깃발거리와 구)시청광장에 '시간여행 깃발' 광장이 조성된다.

/군산=한경봉 기자



군산대학교가 주관하는 새만금실전문제연구단(단장 박성신 건축해양건설융합공학부 교수, 부단장 전기공학과 안민철 교수)은 최근 한국공학교육학회의 2021 공학교육학술대회에 참가해 '2021 새만금실전문제연구단 중간성과 워크숍'을 진행했다.

뉴노멀 사회 선도 '공학교육'

군산대 새만금실전문제연구단, 중간성과 워크숍·공학교육학술대회

군산대학교가 주관하는 새만금실전문제연구단(단장 박성신 건축해양건설융합공학부 교수, 부단장 전기공학과 안민철 교수)은 최근 한국공학교육학회의 2021 공학교육학술대회에 참가해 '2021 새만금실전문제연구단 중간성과 워크숍'을 진행했다.

2021 공학교육학술대회는 '뉴노멀 사회를 선도하는 공학교육'을 주제로 코로나 시대 상황에 대응해 온·오프라인을 병행하여 진행되었고, 새만금실전문제연구단은 참여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해 전체 온라인으로 발표했다.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군산대학교, 원광대학교, 전주대학교의 30개의 연구팀이 팀별 연구 진행 사항을 공유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피드백하는 자리를 가졌다.

발표세션은 참여연구팀의 연구 주제에 따라 기계/IT/도시 분야와 화학/바이오 분야로 나누어 2개 세션으로 동시에 진행되었다.

각 세션은 좌장(새만금실전문제연구단장 박성신 교수, 부단장 안민철 교수)과 컨소시엄 대학별 패널(군산대 기계융합시스템공학부 박현범 교수와 나노화학공학과 김석순 교수, 원광대 전자공학과 조경주 교수와 탄소융합공학과 류지현 교수, 전주대 토목환경공학과 권용석 교수와 바이오기능성식품학과 최현욱 교수)로 구성되어 연구팀별 평가와 자문이 이루어졌다. 참여연구팀은 학술대회 발표로 연구 진행 정도를 확인할 수 있었고, 평가위원들의 자문을 바탕으로 연구를 심화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워크숍을 자평했다.

/군산=남현봉 기자

전북도 재난지원금 마트사용 가장 많은 32%

군산지역 내수경제 활성화

군산시의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이 가장 많이 사용된 곳은 마트(32%, 82억6,3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6일 군산시에 따르면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전북도 긴급재난지원금의 군산지역 지급액은 총 261억7,700만원으로, 이 중 98.4%인 257억4,600만원이 사용되며 군산지역의 내수경제를 활성화시켰다.

긴급 재난지원금이 가장 많이 사용된 곳은 마트로 전체의 32%인 82억 6,300만원이다. 또 식당(20.6%, 53억 1,500만원)과 주유소(8.1%, 20억8,000

만원), 병원(6.6%, 17억800만원), 정육점(4.4%, 11억2,800만원)이 그 뒤를 이었다.

그 밖에도 미용실(2.6%, 6억7,400만원), 잡화점(2.5%, 6억3,900만원), 운동용품(2.3%, 6억300만원), 의류(2.3%, 5억8,700만원), 교육기관(1.3%, 3억4,200만원)의 순서로 재난지원금이 사용됐으며 기타(17.1%, 44억700만원)로 사용된 금액도 상당수를 보였다.

전북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결과 26만17,678명 중 26만1,775명에게 배부돼 97.8%의 지급률을 보였다. 미수령자는 5,903명으로 지난해 미

수령자인 6,057명보다 다소 줄어들었다.

특히, 시는 요양병원 등 현장에 방문하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해 맞춤형 배부를 지난 8월 17일부터 실시해 현장방문 68건, 읍면동 주민센터 교부 4,980건 등을 배부했으며 시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었다.

시 관계자는 "작은 혜택 하나라도 시민들이 놓치지 않게하기 위해 찾아 가는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며 "또 이번 재난지원금으로 군산지역에 내수경제가 활성화되는 좋은기회가 되었다"고 말했다.

/군산=한경봉 기자

군산시 보건소, 자연과 함께하는 아토피 힐링 숲 체험 교실 운영

군산시 보건소는 아토피 질환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예방을 위해 지역 7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자연과 함께하는 아토피 힐링 숲 체험 교실을 운영했다고 6일 밝혔다.

대상자는 어린이집·유치원에서 신청을 받아 6곳이 선정됐으며 상·하반기로 나누어 3회씩 진행되며 오는 13일 1차례 더 진행될 예정이다. 청암산 생태학습장에서 예코메니저의 설명을 들으며 숲속에서 환경과 건강의 긍정적인 관계를 느끼고 숲이 주는 치유 효과를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내용은 ▲양서류, 식물 등 습지 관찰 ▲꼬마 숲 놀이동산에서 자연을 활용한 체육활동 ▲아토피 천연 보습제(미스트) 만들기 등 아이들이 자연을 느끼고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구성됐다.

백종현 보건소장은 "최근 증가하는 아토피 환아 및 보호자에게 올바른 교육을 통해 천연재료를 이용한 아토피 체험활동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아토피 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재발을 감소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보건소 진료계(460-3206)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고병만 기자

군산시, 임피지구 단독주택용지 수의계약 매각

군산시는 임피지구 단독주택용지 잔여필지 8필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임피지구는 만경강 봉황산 등 자연자원을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쾌적하고 살기좋은 전원생활 최고의 주거지로 총 28필지(1만5,079.5㎡)로 조성돼 있다. 지난 7월과 9월 두 차례 공개경쟁 입찰매각을 추진해 20필지를 매각했으며 이번엔 잔여필지인 8필지에 대해 재매각을 추진한다.

매각 대상자인 단독주택 용지는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00%이하 전원주택, 기숙사 등 건립이 가능하며 매각 예정가격은 1필지당 6,600만원 ~ 7,518만원, 면적은 500㎡ ~ 552.8㎡이다.



매각 방법은 수의계약으로 접수기간인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매수신청서를 제출해 접수해야 하며 한 필지에 1명 단독 신청 시 단독신청자를 계약대상자로 선정한다. 한 필지에 2명 이상 경합 신청 시에는 참가인이 배석해 공개 전산추첨을 통해 계약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군산=한경봉 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시, 20대 미혼 청년 최대 31만원 주거급여 지급

익산시는 20대 미혼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6일 시에 따르면 익산시는 9월말 현재까지 누적 544 청년가구에 1억1600만원의 주거급여를 지원했다.

지급 대상자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구성원 중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로 취학·구직 등을 위해 부모의 거주지와 다른 시·군에서 입학료를 지불하며 거주하는 경우 해당된다.

지급 금액은 청년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1인당 1급지(서울) 최대 31만원, 2급지(경기, 인천) 23만900원, 3급지(광역시, 세종) 19만원, 4급지(그 외 지역) 16만3000원이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부모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재훈기자

원광대 약학과, 한국약학교육평가원 5년 인증 획득

원광대학교는 약대학 약학과가 한국약학교육평가원이 시행하는 2021년도 약학교육 평가인증에서 5년 인증을 받았다.

이에 따라 원광대 약학과는 2022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인증교육기관의 역할을 발휘하게 된다.

약대학 평가인증은 사명과 인재상, 운영, 교육과정, 학생, 교원, 교육환경 및 시설, 졸업 후 교육, 지속적인 개선 등 8개 영역에서 약사 양성에 필요한 기본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관점에 사회적 신뢰를 부여하는 제도다.

특히 약사법 개정 법률 시행으로 2025년 3월부터 약사국가시험은 한국약학교육평가원 평가인증을 받은 약대 졸업자만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첫 평가에서 5년 인증을 획득한 원광대 약학과는 원불교 이념을 바탕으로 도덕성과 실천력을 겸비한 창의적 약사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연구 체계를 갖추고 있다.

/김재훈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